

‘오징어 게임 3’ 내일 공개… “마지막 게임 시작된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 4년간 이어진 대단원 마침표 새로운 게임·로봇 등장 주목 “시대정신에 스며든 TV 쇼”

전 세계 드라마 역사상 유례없는 화제를 불러일으킨 ‘오징어 게임’이 4년간 이어온 서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넷플릭스는 27일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를 공개한다. 총 6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마지막 시즌은 지난 2021년 시작해 그간 쌓아온 모든 갈등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공개 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마케팅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이 시리즈를 향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 ‘인간을 믿는 자 vs 믿지 않는 자’… 최종 결말은?

이번 시즌3의 핵심은 주인공 성기훈(이정재)과 프론트맨(이병헌)의 마지막 대결이다. 시즌2에서는 프론트맨이 참가자로 위장해 기훈의 곁을 맴돌며 게임의 균열을 유도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명확한 적대자로 마주한다.

제작진은 이번 시즌을 “인간과 믿음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로 규정했다. 포스터에서도 ‘마지막 대결’이라는 문구가 강조된 만큼, 기훈의 인간애와 프론트맨의 냉소적 세계관 중 어느 쪽이 승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이전 시즌들에 대한 복선 회수와 인물 간 재회도 주목할 요소다.

경찰 황준호(위하준)와 프론트맨의 형제간 재회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예상된다.

황준호는 이전 시즌들에서 드론과 용병을 동원해 섬의 비밀을 추적했지만, 결국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허무한 여정을 반복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를 ‘맥거핀’(허상적인 요소)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시즌3에서 그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 ‘죽남기·숨바꼭질’… 새로운 게임과 로봇 ‘철수’ 등장

‘오징어 게임’을 향한 관심에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게임’ 그 자체에 대한 비중이 상당하다.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새로운 게임 장면에는 대형 줄넘기를 돌리는 로봇 ‘영희’와 함께, 미로 속 숨바꼭질 줄에 걸려 허공으로 날아가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 밖에도 새로운 로봇 ‘철수’의 등장이 예고돼 씬스틸러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 게임 3’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참가자들을 감지해 제거했던 영희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기능과 정체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아울러 생존한 캐릭터들의 향방과 만삭의 준희(조유리)가 게임 한복판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될지, 또 그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오징어 게임’이 그간 세운 기록들 ‘오징어 게임’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처음 공개된 후 K-드라마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각종 수상 이력과 시청자 수 등 눈에 보이는 기록이 증명

한다.

지난 2022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로 꼽히는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1’은 6관왕을 차지했다. 이 중 주요 부문에서 수상한 건 비영어권 드라마로서 처음이었다.

또한 공개된 지 4년이 지난,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여전히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흥행작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나머지 2~5위(기묘한 이야기 시즌4·웬즈데이 시즌1·다마·브리저튼 시즌1)가 모두 영어권 국가의 작품인 점과 비교하면 이러한 성과는 ‘오징어 게임’의 독보적 인기를 더 실감케 한다.

● 세계가 주목한 마지막 장… 해외 언론도 집중 조명

넷플릭스는 시즌3 공개에 맞춰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일, 팬 456명이 참여한 쇼케이스 ‘오징어 게임 메모리얼’이 열렸고, 런던(6월12일)과 뉴욕(6월18일)에서는 프리미어 이벤트를 통해 1화가 먼저 상영됐다.

배우 이병헌은 미국 NBC의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박규영은 영국 BBC의 ‘더 원 쇼’에 출연해 글로벌 팬층을 대상으로 대대적 마케팅을 펼쳤다.

국내에서는 시즌3 공개 다음날인 28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팬 퍼레이드와 출연진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해외 언론들은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에 앞다투어 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뉴스타임스는 “1000개의 맘을 탄생시킨 TV 쇼”라며 “한국의 디스토피아적 스릴러가 시대정신(zeitgeist)과 완벽히 맞닿아 있다”고 평했다.

영국 가디언도 “전 시즌에 걸쳐 폭력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시즌3에서는 복수와 응징이라는 주제가 더욱 선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찬기자·연합뉴스

창작 소리굿 ‘누산네 니단이’ 정기공연

국립남도국악원, 내달 4-5일 진도서

국립남도국악원이 창작 소리굿 ‘누산네 니단이(사진)’를 다음 달 4일과 5일,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정기공연으로 선보인다.

2012년부터 이어온 국악연주단 정기공연은 해마다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단원들의 기량을 선보여 왔으며, 이번 무대는 진도의 역사를 어루만지는 진흔과 위무의 굿 형식으로 구성됐다.

‘누산네 니단이’는 이름 없이 떠돌고 있을 죽은 자들의 다투고 역눌린 울음을 씻김굿 형식으로 풀어낸 창작작이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진도라는 지역성과 남도 소리의 정수를 살려 기획한 작품으로, 창단 이후 최대 역량을 집중한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종묘 제례악 등 다수의 국립공연 연출 경험이 있는 연출가 남동훈이 무대를 맡았고, 작곡은 유민희, 대본 천정완, 무대디자인

오태훈, 조명디자인 이경은 등 국내 최고의 제작진이 함께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진도읍 사무소와 국악원, 고군면 장등문화센터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관람 및 셔틀버스 이용 관련 정보는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또는 전화(061-540-40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자

ACC, 글로벌 해설사 공개 모집

영어·아시아어 가능자 대상 내달 4일까지… 10명 규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영어 및 아시아어 언어로 ACC를 소개할 ‘2025 ACC 글로벌 해설사’를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ACC는 외국인 관람객 증가에 발맞춰 다국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이번 모집을 기획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족 구성원, 일반인으로, 한국어와 함께 영어 또는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어, 파키스탄어 등 아시아어 언어 1개 이상에 능통한 사람이다.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문화·예술·교육 전공자 및 해설 경험자는 우대한다.

다. 선발자는 7~8월 총 7회의 전문 교육을 받은 뒤, 9월부터 11월까지 최소 3회 이상 현장 해설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스토리텔링 기초, 건축·역사 키워드 번역 및 자국어 해설 작성, 미디어 활용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전당장 표창과 함께 활동비, 공식 수료증이 수여된다.

활동 기간 동안 ACC 공간과 콘텐츠를 자국어로 소개하며,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 대상 ‘패밀리데이’, 단체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7월 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과 활동은 모두 무료로, 최종 합격자는 7월 14일 개별 통보된다.

김성수 기자

광주문화재단, ‘영상편집 및 콘텐츠 제작’ 참여자 모집

내달 7일까지 이메일 접수 광주 예술인 30명 워크숍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을 위한 2025 광주예술인아카데미 - 창작 기획 워크숍 ‘영상편집 및 콘텐츠 제작’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예술인의 디지털 콘텐츠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음달 7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AI 기반 동영상 편집 도구인 ‘캡컷(CapCut)’ PC버전을 활용해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모든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SNS 채널 운영 및 브랜딩 전략도 함께 다뤄, 예술인이 자신의

활동을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도 기를 수 있다.

교육은 다음달 22일부터 8월1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된다. 장소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빛고를 시민문화관이다. 또한 8월21일에는 결과 공유 워크숍이 열려 그간의 교육 결과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강의는 영상 제작 전문가인 윤혁진 강사(주식회사 오로지스튜디오 대표이사)가 맡는다. 교육생에게는 개인별 1:1 맞춤 컨설팅(2회), 캡컷 유료버전 1개월 지원, 수료증 발급(출석률 75% 이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참여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예비)예술인이다. 참여 신청은 이메일(oroge_studio@naver.com)을 통해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 공고문(<https://www.gjcf.or.kr/cf/Board/18276/detailView.do>)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본격적인 과정에 앞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오픈클래스도 선착순 모집 중이다.

관련 문의는 과정 운영을 맡은 주식회사 오로지스튜디오(062-716-9353)로 하면 된다.

박찬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들락’ 입점 상품 공모

내달 15일까지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 이하 ‘전당재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상품점 ‘들락(DLAC)’에 입점할 우수한 문화상품을 공모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입점 상품 공모는 아시아 문화예술을 활용한 우수 문화상품을 발굴해 보급하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공모 대상은 디자인, 공예, 어린이 관련 상품 등 아시아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문화상품이다. 개인

과 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월 15일까지다. 입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당재단이 운영하는 ‘들락’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다.

한편,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당재단 누리집(www.accf.or.kr)이나 들락 온라인몰(accdlacshop.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수 기자